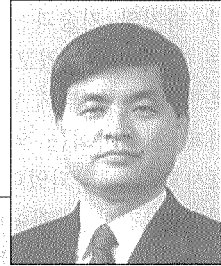


# IT산업의 흐름과 경쟁우위



분회 전자산업연구소  
소장 윤 동 훈

## 1 한국 IT산업의 추이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것 같았던 정보기술(IT)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 십여년간 신경제란 미명하에 정보기술산업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심지어 종래 수확체감의 법칙을 보였던 생산체제와 달리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경제에서는 수확체증의 법칙을 보인다는 주장까지 대두되었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교대하는 순환이 사라지는 대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팽배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대표적 분야인 정보통신산업부터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신경제의 신호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력과 자본투자가 집중되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우위를 유지하는 수급불균형이 서서히 진행되어오다가 누적된 부작용이 이제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닷컴기업의 대량 해고사태 및 도산 그리고 엄청난 재고물량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시장과 더불어 관심이 집중되었던 IT산업이 침체국면을 걷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였던 많은 닷컴기업이 쓰러졌으며, 코스닥시장에서의 IT관련기업들의 주가는 십분의 일 이하로 떨어지는 등 폭락하거나, 부실기업으로 퇴출당하기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참사와 전쟁발발 가능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T산업의 주력산업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민간이나 정부공히 정보기술이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보화 작업은 상당한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IT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망의 획기적인 구축은 해외에서 한국을 IT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날게 하였다. 이러한 정보고속도로는 우리의 정보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

## 2 사이버시장의 개척

우리나라는 산업화사회에의 참여가 지체됨에 따라 지나간 경제개발시대 동안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기술을 전수받거나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대기업 위주의 대량 생산체제를 발전모형으로 도입하여 세계적인 공급기지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기술과 품질의 선진대열로 도약하기는 지난한 일이었고, 중진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산업사회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정보사회가 개막되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아날로그경제의 주요 구성요소가 자본과 노동이었다면, 디지털시대는 아이디어와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창조성과 신기술이 기초가 된 지식기반사회이자 이것이 동시적으로 전세계에 유포되는 인터넷사회인 것이다.

IT사회는 우리나라의 대응이 과거와 달리 용이한 편이다.

이 시대의 선진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IT의 속성은 우리 국민의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정서에 잘 부합된다. 전통적인 구생산방식을 폐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IT 방식에의 접근이 그것이다.

신제품의 경연장이 또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산업대국인 이웃 일본이 정보기술산업의 수용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흔한 PC방은 일본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물적자원이 부족하고 영토가 적어 산업화시대에 세계적인 산업입지로서 부적절한 측면도 있었지만 우수한 숙련인력과 잘 정비된 산업인프라라는 외국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반면 인터넷시대에서는 가상의 영토, 가상의 전쟁 등 사이버사회가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인구나 자원대국인 이들과 호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사이버시대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시

장을 개척해야만 하는 시대이며, 이미 일부 사이버시장은 우리가 선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국에다 사이버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 3 정보화 인력의 양성

정보화시대의 침병은 중후장대한 기계류나 자본이라기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정보화 인력이다.

미국은 90년대초 클린턴정부 시절 IT를 국가적 의제로 선정하면서, 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추진하는 등 IT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장기간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IT를 주요 과제로 삼았으며, BT와 NT 등을 포함한 5T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염원에 그쳤던 선진 기술강국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핵심이 다름아닌 정보화 인력인 것이다.

IT강국으로의 변모는 전통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새롭게 인력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와 기업경영층의 마인드가 정보화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는 일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이버시대의 도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실천 의지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전산망은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또는 해킹에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여 자료의 유출이나 마비상태에 종종 빠지고 있다.

재발 방지에 무방비하거나 전문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다양한 사이버 인재의 육성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

이다. IT시장에서의 인력구조가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질적 고도화도 달성하여야 한다.

양적으로도 IT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양상이다.

당장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구직이 구인을 초과하고 있으나 트렌드상으로는 구인난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질적으로는 게임프로듀서, 프로그래머 등 고급 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

IT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코스인 것이다.

세계정보화시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 4 신기술이 경쟁 우위

인터넷사용자, CDMA 단말기 등 정보 인프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화려한 등장 이면에는 외국기술이 상존하고 있다. 산업화시대에 부품 및 소재의 일방적인 해외의존도의 망령이 IT산업에도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정보 인프라의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외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내에 있는 초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의 공급과 매출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DMA 단말기의 경우도 국산화율은 기대만큼 높은 편이 아니며 핵심부품의 기술은 미국회사인 퀄컴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매출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LG와 삼성 등 생산업체는 퀄컴에게 반드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IT인프라에 상응하는 신기술의 개발을 확보해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IT분야에서 신기술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데다 라이프사이클이 대단히 단축되고 있다. 중소 규모의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셈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세계시장에서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세계 거대기업들은 세계시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몸집키우기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수 합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시장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단일 화되고 있으며 신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신기술과 마케팅만이 우리에게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원을 집중하고 시장성 있는 신기술의 개발에 과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